

“이 가격에 팔아서 추석 어찌 쇠나” 한숨만

■추석 앞둔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가보니

나주·영암 배 농민 시세 30% 하락에 침통 농사는 풍년 소비는 흉년...썰렁한 대목장사

2일 오전 6시 정각 광주 북구 각화동 농산물 도매시장 원예농협 공판장(경매장). 대목 시장을 맞아 연중 가장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됐다. 햇과일을 싼값에 매입하려는 중도매상인과 이에 맞서 낙찰 가격을 끌어올리려는 경매사들간 팽팽한 기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최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입찰에 몰두하는 상인들이지만 올 추석 경매는 열기가 예년처럼 뜨겁지 않았다. 과일마다 대체로 풍년이 들어 출하량은 넉넉한데 소비가 따라와 주지 못해 지난해 대비 30% 이상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도매인과 소매상인들도 체감 경기가 얼어붙고 과일 선물시장이 위축돼 덩석덩

석 물건을 매입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명절 안에 팔아치우지 못하면 모두 재고로 남아 손해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

상인들과 출하주(농민)의 예타는 마음을 알 리 없는 공판장에는 온갖 햇과일로 넘쳐났다. 푸른빛이 채 가시기도 전에 차례상의 부름을 받은 단감, 대추부터 이제 제 맛이 든 포도와 거봉, 끝물에 접어든 복숭아, 수박도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과, 배는 공판장 실내를 벗어나 야외 주차장까지 점령하는 등 대목 시장 터줏대감의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햇밤도 빠지지 않았다.

시시각각 가격이 결정될 때마다 지켜보

던 농민들의 표정은 잿빛으로 변했다. 특히 배를 출하한 나주와 영암지역 출하주들은 침뚫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나이지 못한 한 출하주는 “올해 추석이 빨라 과일이 맛없다는 소문이 파다해서 과일이 대목 시장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와는 다르다”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얼마나 달고 맛있나. 있는 그대로 기사가 좀 써달라. 이거 팔아서 농자갯값도 갚고 추석도 쇠야 하지 않겠나”고 하소연했다.

시장은 언제나 그렇듯 현실을 그대로 반영했다. 배를 비롯한 주요 과일 가격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한 마디로 죽을 췌다. 이날 경매된 수천 상자의 배(7.5kg 기준) 가운데 2만5000원을 넘는 것은 한 상자도 없었다. 예년보다 30% 이상 떨어진 것이다. 평년보다 저렴한 가격에도 공판장을 찾은 시민들은 덩석덩석 과일을 사지 않고 물건을 만지작거렸다. 괜히 선물했다가 맛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망설이던 것이었다. 배를 보고 한참을 망설이던

40대 주부는 상인이 원하는 배를 한입 베어 물고는 흥정도 없이 선물용으로 30상자를 차에 싣고 떠났다.

이날 원예농협에서 경매된 물량은 총 10억원어치로 품목별 최고 시세는 ▲배(신고·7.5kg 기준) 2만4000원 ▲사과(홍로·5kg) 3만6500원 ▲포도(캠벨 및 거봉·5kg) 2만3000원 ▲단감(서촌·10kg) 2만5000원 ▲대추(1kg) 4300원 ▲밤(1kg) 4400원 등이다. 최고 시세는 품목별 전체 거래량의 1~2%로, 특상품으로 분류돼 선물에 적합한 과일 시세는 최고가보다 30% 아래에 형성되고 시중에서는 여기에 유통마진이 붙는다고 경매사들은 설명했다.

광주원예농협 방원혁 조합장은 “올해 추석이 빠른 편이지만 농업 기술이 좋아져서, 부지런한 농부의 발걸음 소릴 듣고 자란 사과 배는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면서 “시름에 잠긴 농민들이 맘 편히 추석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올 추석에도 지역 햇과일을 많이 사달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인구 1000명 당 성범죄 전국 최다 광주경찰 도대체 뭐했나

3년6개월간 무려 3537건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밤길 걷기 불안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지난해 인구당 성범죄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광주 경찰이 지난해 성폭력 사건을 '4대 사회악(惡)'으로 규정하고 경찰서마다 수천만 원씩 쏟아부어 구호성 이벤트에 치중한 결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헛구호'였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적극적 치안 활동으로 감춰졌던 성범죄가 드러나면서 범죄 건수 증가로 이어졌다는 게 경찰 설명이지만 다른 지역도 비슷한 조건인 점을 감안하면 실적에만 치우쳐 치안 인프라 확충 등 예방 활동에는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수가 1.28건으로 ▲경남(1.18건) ▲경북(1.23건) 다음으로 범죄건수가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전남에서 지난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828건으로, 전년도(647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목포·여수·순천 등 도심 지역 증가세도 뚜렷하다. 전남청이 내놓은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목포의 경우 지난해 2012년 115건이던 성폭력 범죄가 지난해 194건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광주·전남 지역 모두 성폭력 발생건수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단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광주·전남경찰이 성폭력 범죄 예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찰의 범죄 차단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총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해 '4대악' 홍보를 내걸고 형광펜, 전자파차단스티커, 후후리가, 전단 등 이벤트성 사업비로 수천만원을 쏟아부은 데 대한 비판도 여전하다.

한편 성폭력이 빈번한 상위 5개 지역(광주·서울·제주·부산·인천)에서 성폭력 발생건수는 1000명 당 0.68건으로 전국 평균인 0.54건에 비해 훨씬 높았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구호 외면 세월호 기관사 2명 구조 기다리며 캔맥주 마셨다

광주지법 재판...3등 기관사 “세월호 가장 위험한 배라 들었다”

세월호 일부 선원들은 여객선 침몰을 앞둔 위급 상황에서 '안장'을 찾았다며 캔 맥주를 찾아 마시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승객들의 안전에는 무관심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법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승무원들조차 세월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라는 증언을 하는가 하면, 사고 당시 퇴선 명령이나 '승객을 구조하라'는 방송이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2일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이준석(68) 선장 등 15명에 대한 재판은 이미 구속 기소된 피고인 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 긴박한 상황과 조난 승객 구조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원들의 무책임함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1등 기관사 손모(57)씨는 이날 재판에서 여객선이 침몰하는 위급한 비상 상황에서 다른 선원 침실에서 캔 맥주를 가져와 기관장과 마신 이유를 묻는 검사 질문에 “격양된 감정을 안정, 진정시키기 위해서”라고 증언했다.

“기관실 복도에서 언제든지 탈출할 수 있다는 생각에 여유가 생겨 마신 것 아니냐”고 되물자, “그렇게 쉽게 구출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했다. 노씨 뿐 아니라 기

관실 선원들은 또 구명조끼를 입고 기관실 복도에서 대기하는 중 ‘승객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라는 말이 선원들 사이에서 나왔음에도 승객 구조 조치를 위해 승객이 머무르는 쪽으로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선원이 캔 맥주를 마시면서 선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등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침몰하는 배 안에서 공포와 불안함에 떨며 ‘선내 대기하라’ 방송을 믿고 기다리던 승객 구조 조치에는 정황이 드러나는 증언으로 받아들여졌다. 노씨는 “가기가 싫어 안 간 것이냐”는 검사 질문에 “판단 착오”라고 했다.

노씨도 자신의 객실 잡 자리에 붙어 있는 비상 상황 발생시 역할(구명뗏목 투하) 조작 몰랐지만 검사가 “선장이 퇴선명령도 하지 않고 승객구조를 수행하라는 방송도 하지 않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직무유기”라고 답했다. 노씨에 이어 증언한 이모(여·25)씨는 “사고 전 원래 선장 신모씨와 다른 선원이 ‘이 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배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을 지켜본 일부 희생자 가족들은 휴정 시간에 “맥주 갖다 줄게 잘 기억해 증언해”라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도 시외버스 탈 수 있게 해 달라” 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휠체어를 탄 광주·전남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이 시외버스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촉구하며 버스에 오르려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軍, 윤일병 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최종 결정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령부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일병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최초 수사를 담당한 28사단 검찰부는 지난해 5월 2일 군사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연합뉴스

“25년 전문가” 허위광고 내고 건물주들에 5억 가로챈 사기단

○...생활 정보지에 “25년 경력의 전문가와 귀하의 건물을 새 단장 할 수 있는 찬스”라는 광고를 낸 뒤 찾아온 건물주들에게 수억원을 가로챈 50대 사기단이 경찰에 달미.

○...2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54)씨 등 2명은 지난 4월 순천에 사는 박모(62)씨에게 모 대기업 회장 별장 사진을 보여주며 “우리가 한 공사다. 저렴하게 새 단장 해주겠다”고 속인 뒤 8000만원을 받고 잠적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전국에 걸쳐 15명을 상대로 5억원에 달하는 공사 대금을 가로챈 것이다.

○...김씨 등을 구속한 경찰은 “이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저 친구가 모든 걸 꾸렸다. 나도 속았다’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며 허를 찌름.

/순천=김은종기자 ejkim@

대지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정원

H.010-8572-8985 T.262-8985

- **진주빌라 89㎡**
북구 오치동 1층, 구조좋은 매매가 5950만원
- **임야 36026㎡**
담양군 창평면 외동리 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2차선 포장도로 접 전면 85m 접 매매가 2억1800만원
- **다가구 주택 부지**
북구 오치동(도로 접) 대지 928㎡(280평) 매매가 4억8000만원

★급매물 접수합니다

오피스텔 "매매"

동구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 **53평 - 13층**
코너, 전망좋은 전채 올수리, 사무실 적합 매매 - 1억5500만원
- **29평 - 12층**
양동 하천 방향 전채올수리, 주거용 매매 - 7200만원 주인직매 010.3180.8900

아파트형 콘도/ 별장/ 펜션 분양

문의, 010-6832-8900

★전남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 453번지

- ★ **아파트 개념**
전기, 수도, 가스 개별 100m 온천수, 편백나무 시공 TV등 빌트인 시설 포함
- ★ **산속의 공전**
화개장터, 쌍계사, 섬진강 근접거리
- ★ 2층, 28평, 1세대
- ★ **총 55세대 (18/28/56평)**
- ★ **28평 - 9000만원(융자 2300만원 포함)**

대명리조트와 교환 가능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 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단독, 공동투자 하실 분
- ▶ 낙찰물건에 투자 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경매 직전 부동산! 매입/해결합니다.